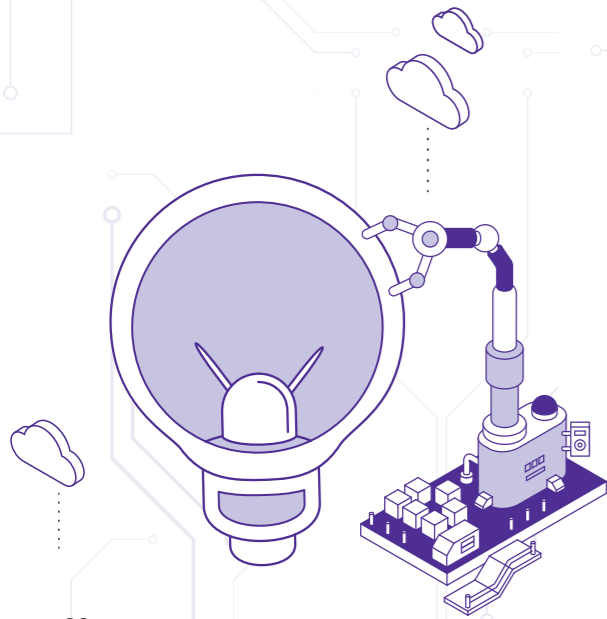


디지털 대전환의 시대, 우리에게 어떤 교육이 필요한가?

코로나19로 우리의 삶 그리고 교육 현장은 참 많이 달라졌다. 2020년 전 국민 AI-SW 교육 확산 방안이 발표되었고, 교육청에서도 소프트웨어 교육, 인공지능 교육 활성화를 위해 다양하게 지원하고 있다.

글. 안셋별(독산고등학교 교사)



교육 플랫폼의 변화

온라인 개학 시기에 많이 사용된 대표적인 플랫폼에는 EBS 온라인 클래스와 구글의 클래스룸이 있다. 이전의 단방향의 수업 자료만 제공하던 방식과 달리 교사와 학생이 소통하고 LMS(학습관리) 기반의 온라인 학습을 지원한다. 지식 전달에서 끝이 아니다. 실시간 쌍방향 수업을 통해 학생들과 소통한다. 퀴즈, 토론 과제 등을 통해 학생들 간에도 의견을 나누고 사고를 확장해 나갈 수 있다. 개별화된 과제 제출과 피드백 제공 등 **학생 개개인의 학습**

과정에 보다 주목하고 있다.

이러한 플랫폼의 변화는 시대가 요구하는 역량의 변화와 맞닿아 있다. 우리 학생, 자녀들에게는 암기 지식이 필요한 게 아니다. 실생활 속에서 문제를 분석하고, 문제 해결에 필요한 지식을 활용하여 타인과 또는 인공지능과 협력적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역량이 필요하다. 역량을 길러가는 과정 속에서도 호기심과 사고력, 자기주도적인 학습 능력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배움의 주인되기

새로운 경험과 배움을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소프트웨어 및 인공지능 교육의 필요성

글로벌 컨설팅 기업인 PWC에 따르면, 소프트웨어를 만들고 응용하는 일자리는 지속해서 창출되며, **소프트웨어 역량 준비가 미흡할 경우 직업을 구하기 어려워질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모두를 소프트웨어, 인공지능 개발자로 길러내기 위해 미래 교육, 코딩교육, 디지털 문해력(Literacy) 함양, 정보교육이 중요하다는 것이 아니다. 모든 학생들이 많은 직업에서 접하게 될 소프트웨어 세상을 이해하고, 소프트웨어를 융합한 문제 해결 역량을 최대한 함양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협업의 경험 쌓기

긍정적인 협업의 경험을 통해 타인의 의견을 경청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의사소통 역량, 협력적 문제해결력을 키워야 한다.



디지털 기기를 책임감 있게 관리하기

지나치게 오래 사용하지는 않는지, 늦은 시간까지 사용하지는 않는지 스스로 점검하고 규제할 수 있는 힘을 길러야 한다.



코딩 공부는 쉬운 언어로 배우기

초등학생부터 중학생까지는 스크래치, 엔트리 등과 같이 레고 블록을 맞추는 느낌의 직관적이고 시각적인 블록코딩이 적당하다. 이후에는 데이터 과학, 딥러닝 등에서도 많이 활용되고 있는 파이썬을 배워두면 유용하다.

66

지금 소프트웨어와 인공지능은 모든 산업 분야에서 우리 삶에 이미 깊숙하게 파고들어 있으며, 거부할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 되었다. 인간보다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면이 있는 인공지능과 우리가 협업하고 공존하며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준비해 가야 한다.

99



비판적 사고력 함양하기

리타당하고 신뢰성 있는 자료, 자신이 속한 공동체의 실제적인 문제에 관심을 갖고, 컴퓨팅 사고력과 문제해결력을 바탕으로 해결해보는 경험을 쌓아야 한다.